

멜로드라마의 가부장적 헤게모니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을 중심으로-

이름	송수빈
작성일	2018.12.25.(화)

<목차>

1. 들어가며-멜로드라마의 교묘한 가부장적 헤게모니
2. 성차별 사회를 기반으로 한 젠더 고정관념의 양상
 - 2-1. 여성의 주체적 외모 권력의 허구성
 - 2-2. 남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악녀의 탄생
 - 2-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 고정관념
3. 나오며-대항 헤게모니를 통한 멜로의 비판적 수용

1. 멜로드라마의 교묘한 가부장적 헤게모니

‘헤게모니(Hegemony)’란 지배 계층이 단순히 사회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상황이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이데올로기 과정을 통해 지배 계층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모두의 이익인 것처럼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정이 있음을 의미하며, 피지배계층이 현재의 권력구조에 자신들을 묶어두는 가치나 이상, 목적, 문화적 의미들을 능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¹⁾

멜로는 헤게모니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적 헤게모니는 멜로의 주 소비층인 여성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여성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교묘한 기술이 멜로드라마 곳곳에 내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한 남성의 정치적 지배는 거의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들에게만 ‘사회적으로 정해진 예쁨’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성의 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여성의 외모적 다양성은 거의 찾기 힘들다. 뚱뚱하거나 사회적으로 못생겼다고 평가받는 남성들은 대중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주연이나 조연으로 자주 등장한다. 남성들은 자신들도 외모로 차별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차별은 여성이 받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날씬해야 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평가받는 여성들은 아주 작은 단위까지 세세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난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연은 흔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하지만, 남성은 그 기준이 여성보다 낮다. 표준 체중보다 많이 나가는 남성 배우를 찾기는 쉽지만, 여성 배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요소들로부터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하려는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나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처럼 여성의 외모가 처음에는 못생겼다가 점차 발전하여 나중에는 예뻐지는 양상을 그리는 서사는 매우 흔하다. 이는 여성들이 예뻐졌을 때 얻는 권력을 극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게끔 만들고, 이것이 곧 자신의 의지라고 착각하게 한다. 하지만 못생겨거나 능력이 없는 남성 인물의 경우, 그 자체로 그를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여성을 만나는 서사

1) Antonio Gramsci, 1971, 57쪽.

가 더 많다. 영화 <아수와 미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남성들의 편리를 위한 아주 교묘한 차별이다. 요즘에는 페미니즘이 대두되며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의 탈 코르셋 운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여성은 화장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주체적인 것이라고 믿으며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매체인 웹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남성의 지배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웹툰이 내포하는 교묘한 헤게모니의 양상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웹툰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 서사를 전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옹고 그름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웹툰을 통해 헤게모니를 접했을 때, 서사 속에 함축된 여성 혐오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웹툰이 표면적으로 그리는 주제 혹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만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눌 뿐이다. 청소년들이 멜로라는 장르를 접하며 쉽게 노출되는 혐오를 스펀지처럼 자신의 가치관 내로 흡수하는 양상은 웹툰 시장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점이고,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네이버 인기 웹툰 <여신강림>은 점차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못생긴’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이다. 여성들이 주 소비층²⁾인 만큼 만화의 소재로 여성들이 받는 외모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시선 등을 주로 다룬다. 겉으로 보면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서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으로 ‘못생겼다’고 평가받는 주인공 주경이 뛰어난 화장 기술을 통해 ‘예뻐지는’ 이야기가 과연 외모지상주의 타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만화 곳곳에 내포된 가부장적 헤게모니는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남성주의적 시각에 물들게 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다음은 <여신강림>에서 찾을 수 있는 남성의 교묘한 지배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2. 성차별 사회를 기반으로 한 젠더 고정관념의 양상

2-1. 여성의 주체적 외모 권력의 허구성

화장에 대해 아직 잘 모르던 중학생 시절 주경은 좋아하던 급식실 오빠가 같은 반 열쌍 새미와 사귀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외모에 대한 변신을 꿈꿨다. 결국,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누구보다도 화장을 잘 하게 되어, 주변 친구들과 이웃도 본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일단 주경이 화장을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좋아하는 남성이 예쁜 여성과 사귀는 것이 곧 주경이 화장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들어있다. 특히 스테디에서 만날 잘생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경이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전날 언니에게 팩을 빌려서 피부를 관리하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기이하다. ‘브라운 계열 음영 새도’를 통해 ‘눈매의 깊이감을 살리’고,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청순하게’ 보이게 하는 것 등 직접적인 화장품의 언급과 그 효과를 묘사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을 부추긴다. 심지어 ‘누가 봐도 약간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꾸며야겠어’라

2) 네이버 웹툰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여신강림>은 화요일 10대,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인기 만화’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함.

는 주경의 대사를 통해 화장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어야지, 너무 진하거나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는 작업이 되면 남성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단지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전날부터 팩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한 주경의 얼굴은 스터디 남성들의 민낯과 매우 대조된다. 이는 남성에게 화장은 디폴트가 아니지만, 여성에게 화장은 언제나 필요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현실에서 화장을 잘 안 하던 친구가 화장하면 ‘오늘 특별한 일 있느냐’고 묻는 관습 역시 바로 이러한 데에서 기인한다.

주경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는데, 그 시기 주경의 반 친구들은 이미 화장을 하고 다니는 상태였다. 어찌면 매우 이른 나이부터 화장을 시작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작가의 비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나치게 화장에만 몰두하는 주경의 모습은 만화에서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주경은 뷰티 블로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화장을 배웠으며, 당연히 그 과정에서 화장품 소비량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화장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출이 있으므로, 주경이 화장품 가게 세일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달려나간 것도 당연하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주경이 화장을 하는 모습은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일부로 그려지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화장을 위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에 화장을 하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학생들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활발하게 주고받는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여학생들의 화장은 거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선생님들조차 이를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화장을 금지하는 학교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화장을 하지 마라’는 말이 ‘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느냐’는 말로 감쪽같이 변신한다. 여성의 화장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는 여성을 단지 ‘보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인물들이 화장하는 장면은 매우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고등학생들이 눈썹을 정리하고 쌍액, 뷰러, 렌즈, 마스크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의 화장 분위기를 조장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이 끝나면 항상 외모에 대한 평가가 따라온다. 예를 들어 주경이 익명 커뮤니티에 얼굴 사진을 올리면 예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주경은 ‘침대에 풀썩 누울 정도’로 좋아한다. 주경은 틈틈이 바른 친구의 모습을 보며 ‘헐! 야, 완전 예뻐!’라고 말하고, 친구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며 좋아한다. ‘예쁘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인물들의 대화 속에 그대로 투영된다.

길거리의 사람들이 주경을 보며 ‘예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표현하는 작가의 사고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독자들은 진한 화장을 하고, 오프 솔더와 레이스가 달린 짧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는 주경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깨가 내려가는 오프 솔더, 안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짧은 치마, 긴 머리 등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패션으로, 이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주경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오히려 화장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주경을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그린다. 이는 여성의 미의 기준을 고착화하고 화장이 주체적인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불편한 장면이다.

뮤지컬 배우가 꿈인 고운에게 주경이 화장을 해주는 장면 또한 마찬가지다. 고운의 화장을 하기 전 모습은 기가 막히게도 주경의 민낯과 거의 똑같다. 얼굴 곳곳에 퍼져 있는 여드름과 찢기 없는 입술, 지나치게 술이 많거나 적은 눈썹, 쌍꺼풀이 없는 눈, 도수 높은 안경을 쓰는 점 등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둘이 이런 모습으로 밖을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좋지 않았다. 대놓고 조롱하거나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의 태도는 주경과 고운의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여드름이 나고, 쌍꺼풀이 없는 여성은 못생긴 것이라는 암묵적인 미의 기준을 재생산하며 여성의 ‘예쁨’과 ‘못생김’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주경과 고운을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주경과 고운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서사 구조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더욱 강요하는 것이다. 화장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그 자체로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작가는 ‘못생긴 여성은 화장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기만 했다.

사실 외모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이상적 세계관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는 예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으며 그 안에서 약간의 개인의 선호가 가미될 뿐이다. 예를 들어 주경이 맥도날드에서 마주친 한 여성은 목에 초커를 달고, 코에 피어싱을 달았으며, 주근깨 화장을 하고, 눈에 띄는 염색을 하여 흔한 여성의 모습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가 정한 여성의 미적 기준의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초커는 대표적인 여성 혐오적 액세서리 중 하나이고, 주근깨 화장 역시 유행을 따르는 화장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성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장은 여전히 ‘사회가 바라는 예쁜 여성상’과 거의 일치한다. 오히려 남성이 거의 입지 않는 여성들의 코르셋인 크롭티를 입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외모적 다양성을 확대한다기보다는, 더 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 주경은 이를 보며 ‘개성 완전 강하다, 짱이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코르셋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사이다.

웹툰 전반적으로 여성 인물들은 주체적으로 화장하고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로 인해 얻는 외모 권력은 허구이다. 겉으로는 여성이 자신을 꾸미는 행위가 곧 자신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놓았지만, 실은 여성의 코르셋을 조여서 남성의 아래에 머물게 하는 젠더 지배 구조의 일부일 뿐이다.

2-2. 남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악녀의 탄생

남성이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여성의 적을 여성으로 돌리는 것이다. 여성이 실제로 부숴야 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뒤로 한 채 같은 여성을 비난하도록 만들어 본질을 흐리게 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인터넷에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도, 실제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도 대부분 헤게모니에서 기인한다. <여신강림>에 등장하는 악역 중 남성은 바람을 피우는 우현을 제외하고는 없다. 왕따 주동자, 사기꾼, 주인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 등 나머지는 신기하게도 모두 여성이다. 이 교묘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여성들은 남성주의적 시각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 자신은 그러한 여성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을 좇게 된다.

주경의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기자 ‘야, 개도 집에서 나랑 똑같은걸?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미리 인정해둬라.’라는 주경의 대사는 여성들은 은근슬쩍 다른 여성을 깔보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주경을 예전에 따돌렸던 주동자들은 성형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졌다. 악녀에게 성형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성형 자체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은 예뻐야 하지만 성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헤게모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성주의적 시각이다. 심지어 둘 중 한 명은 걸그룹으로 데뷔하는데, 이것은 보이그룹으로 데뷔하려 했던 수호와 대비된다. 두 쪽 모두 아이돌 연습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인성이 안 좋은 인물로, 남성은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파로 그

려진 것 역시 여성 혐오라고 볼 수 있다. 수호도 주변 사람들에게 쌀쌀맞은 성격 때문에 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수호의 그러한 성격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고 난 후 그 후유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된 것이다. ‘악(惡)’의 프레임을 모두 여성에게 씌우고, 수호의 까칠한 성격에는 정당한 이유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을 지지할 합당한 동기를 제공한다. 심지어 수호는 오히려 화장을 한 주경보다 만화책을 추천해주는 화장을 안 한 주경의 모습에 더 친절했는데, 이는 수호를 여성의 ‘외모’보다 ‘성격’을 보는 선한 인물로 그린 것이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의 판타지를 실현한 것인지, 혹은 남성주의적 시각에 기인한 여성 혐오인지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으나 독자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때 여성 혐오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진의 페이스북을 보며 ‘몸매 좋은 건 알겠는데, 노출 너무 심하고 민망하잖아.’라고 말하는 여성 인물, 음식에 머리카락이 잘못 들어갔다고 행패 부리는 행위 등이 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여성에게만 ‘악’을 부여하여 혐오적 시선을 드러냈다.

2-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성 고정관념

주경은 수호와 함께 옥상에서 수호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는데, 이때 주경은 수호가 가져온 도시락을 당연히 수호의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수호의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다. 도시락을 싸는 사람이 당연히 엄마일 것으로 생각한 주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엄마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보다는 주경이 단지 수호에게 실수한 자체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주경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본적 계기인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려는 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3. 대항 헤게모니를 통한 멜로의 비판적 수용

멜로드라마가 그리는 이데올로기는 결국 여성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는 행위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교묘한 헤게모니이다. 젠더 지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부 남성들은 자신들도 ‘잘생길 것’을 강요받는다고 반론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드러난다. 같은 외모를 칭찬하는데 여성에게는 ‘예쁘다’라고 말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잘생겼다’라고 한다. 이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예쁘다’라는 말이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상을 평가할 때 ‘예쁘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켜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잘생겼다’는 철저히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다. 그럼 여기에서 왜 여성에게는 ‘잘생겼다’라고 하지 않고 ‘예쁘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인간이 아닌 ‘대상’ 혹은 ‘객체’로만 평가하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남성의 언어 권력이다. 현대 사회는 가부장적 헤게모니의 집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미니즘의 대두와 함께 남성들은 여성을 깎아내리는 데 급급하다.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가리켜 ‘메뽀지’³⁾, ‘쿵쿵쿵’ 등의 언어로 묘사하고,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은 분명 못생겼을 것이다’라는 근본 없는 주장을 한다.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 대

3) 메갈리아와 뽀뽀지의 합성어.

다수 남성은 페미니즘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지자, 자신들의 위에 있는 남성이 아닌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는 여성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다.

성차별이란 ‘여자니까 집안일을 해야 해’, ‘남자니까 무거운 걸 들어야 해’ 등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서사 내에서 한쪽 성이 지나치게 약하게 그려진다면, 선악(善惡)이 지나치게 한쪽 성에만 몰려있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멜로의 헤게모니는 남성의 지배권력이 여성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꾸미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젠더 의식을 갖고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멜로의 편파적 서사 구조를 방관하는 순간, 어쩌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다음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일부이다.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의존하는 것은 노예 국가의 특징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열심히 일하고 노예 주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주인은 사회적 기생충이며 노예는 실제로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인은 실제와는 정반대로 보이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노예는 주인 없이 살 수 없으며 어리석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게끔 합니다. 노예가 이것을 믿는 한, 주인은 평화롭게 잠잘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생존하기 위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멜로드라마의 실태와 거의 유사하다. 남성들 혹은 남성주의 시각에 몰들어버린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멜로의 서사는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여성이 권력을 가지려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 <힘 센 여자 도봉순>은 여성이 남성을 지켜주는 신선한 소재로 현대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이 자신의 지나친 힘을 숨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멜로드라마는 대중의 감정과 모순된 가치들이 충돌하는 격전지이므로 서사보다 시청자가 느끼는 감흥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갈등 상황을 통해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고, 선과 악의 대립 구조를 형성하여 권선징악의 결말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증대시킨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멜로에서 얻는 즐거움은 결국 현실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위에 존재한다. 단순히 독자의 흥미만을 유발하는 서사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행하는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멜로드라마를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할 때가 아니다. 구시대적 여성상의 표본을 그리는 대부분의 멜로드라마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멜로드라마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바뀌는 방향이 더 교묘한 헤게모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은 이러한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해야 한다. 수용자의 해석 여부에 따라 멜로드라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가 될 수 있으므로 여성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멜로를 재해석하고 비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